

새롭게 출발하는 달

믿음성장 /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나를 알게 된다.



“영원님의 역사와 감동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영원하게 29)
 “행, 복, 극락기이포, 들리누, 이영삼,”

섬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당신을 위한
 부들부들
 하

예 배 WORSHIP

January 10,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호세아 4:6-10 하나님을 기억하며 축복을 누리자!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595장 - 나 말은 본분은 (통일찬송 372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구은강 집사, 최내권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여호수아 11:1-11

기난안의 북쪽을 향한 새로운 도전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월은 “새롭게 출발하는 달”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변화합시다.**
-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 온라인** 예배 주정부의 권고로 zoom 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세 신앙교육** E-Learning 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 일곱째 췌 해** 사역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 새롭게 도약하는 믿음과 가정, 교회와 사역이 되도록 함께 섬깁시다.

1월의 사역 - 신년감사주일(1/3), 제직/공동의회(17)

♥ **생일 축하** ♥ 영준 Andrew(7) 이진아(8) 강현 Caleb(20) 정홍렬(21) 민성 Joseph(26)
윤정 Jenny(28) 혜영 Jessica(29)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에배기도	1/3	1/10	1/17	1/24
	김훈태집사	최선운집사	고순제전도사	최내권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8	1/15	1/22	1/29
	오정은집사	박진성집사	구 민집사	구은강집사
주일헌금위원	1/3	1/10	1/17	1/24
	최내권집사/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최선운집사	
주일안내위원	1월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2021년 잘 시작하기 / 창세기 11:31-12:9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지금 우리도 걷고 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 우리는 약속된 천국을 향한 길이다. 이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 세상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축복들을 누리다. 이 길이 더욱 더 복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계속 변화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 변화는 순간에 이루지지 않는다.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했다. 느리더라도 쉬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면 된다. 작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보다 올해는 좀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에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보다 올해는 좀 더 많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 된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향하여 더욱 성숙하게 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까지 변했듯이, 2021년 한해도 더욱 힘차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과 이웃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변하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축복을 누리자. / 호세아 4:6-10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도록 가르치는 교사들 (제사장, 선지자, 사도, 목회자)

각자의 사명을 기억하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사명에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축복을 누리자. / 호세아 4:6-10

기름진 것이 썩으면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추악해진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왕국의 제사장들이 그러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과 신앙을 책임져야 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추악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성령님을 감동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가르친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거룩한 존재이다. 성도는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직분이다. 죄를 멀리하며 미워해야 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훈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그런데 북왕국의 제사장들은 전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었다. 형식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도, 속죄의 제물로 배를 채우던 제사장들도 가증스러웠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 선지자에게 임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급격히 쇠락하다 급기야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다.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 시대 누린 잠깐의 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오랜 치욕을 겪으며 살아야만했다. 혹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의 삶에 깊숙이 파묻힌 것은 아닌가?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명도이다.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 이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갖추자.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자. 사명에 합당하게 살고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바라 보는 2021년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코로나로 온 세상이 암울함에도 우리 왕되신 주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늘 함께 한마음으로 여러분의 두손 모으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방패막임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며 건강과 기쁨이 넘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분들이 힘드실테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평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뉴욕도 코로나 사태는 진정이 되었다가 겨울이 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처 입은 가정들이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저희 센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리 정책으로 아직까지 재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편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가 섬기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생필품을 나누는 지원을 주변 교회들과 협력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필요한 것을 다 돕지는 못하지만, 일단 전기세까지 필요한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월세를 낼 수 없어 더 싼 집들로 옮겨야 하는 가정을 도와 이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가 내년에는 다시 시작되어, 영어를 가르치며 교제를 하고, 또 아이들과 그전처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증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중에 사누 타망(Sanu Tamang) 네팔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놀라웁게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함께 교제를 하고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10]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하루를 기뻐하며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우리가 이겨낼 힘이 될것입니다. 항상 함께 증보하고 동역해 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큰 은혜가 새해에도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천국은 좋은 부부 관계에 기초한다.
앞으로 몇 주간 좋은 부부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자. / 편집자 주

1. 인정이 필요한 남편 VS 안정을 원하는 아내 (1)

어떤 부부라도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행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있기를 바라신다.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알고 성숙하고 좋은 부부들이 세워져가길
기도한다. 하나님은 처음에 남편과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여자가 결혼해서 아내가 된다.

남편과 아내의 출발은 남자와 여자다.
이것을 기억하고 적용하면 누구든지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

내 남자에게 중요한 것

남자들은 '한 일'이 중요하고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아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남자는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아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 정말 잘했어” 바로 이 한마디뿐이다.

내 여자에게 중요한 것

여자들은 '할 일'이 중요하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남편이 안정감을 줄 때,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내용 발췌 -「끝까지 잘 사는 부부」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여호와와의 만수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니
평안으로 재물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후미를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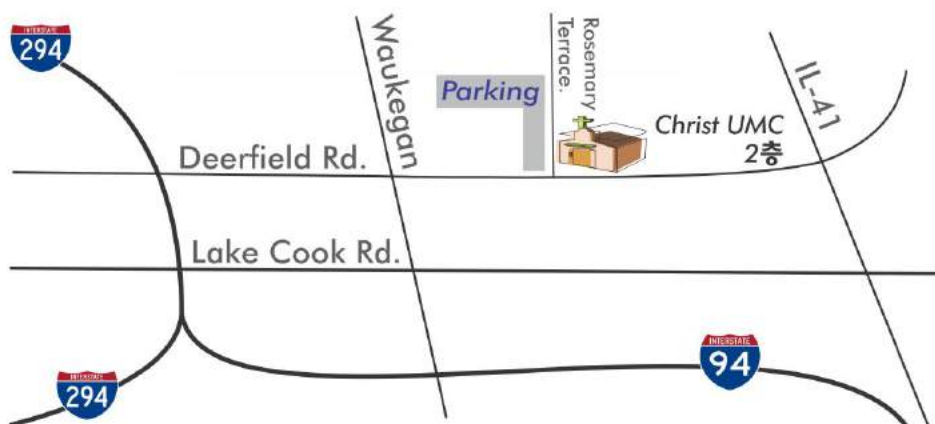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